



세월호 참사 4주기... 광주 추모문화제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시민상자들이 304명의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신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관련기사 4-7면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서구갑·무안신안영암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 후보면접 완료... 23~25일 경선헌 듯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재보선이 확정된 광주 서구갑과 무안·신안·영암 등 7곳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했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박혜자 전 국회의원과의 승급식 노후현재단 광주운영위원이 면접에 참여했으며, 영암·무안·신안에선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참여했다. 공관위는 이날 공천심사가 완료되면 당 지도부와 협의해 심사 결과 발표 형식과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공관위 차원의 심사는 오늘 완료되며, 발표 일정은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확정된 재보선 지역 중 서울 노원병과 부산 해운대구는 각각 1명이, 광주 서구갑 등 그 외 지역은 2명이 공천을 각각 신청했다. 민주당은 단독

신청한 지역은 적합도 등을 평가해 공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국회위원 재보선 후보경선은 광역단체장 후보경선과 마찬가지로 관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이 종료되는 오는 23~25일경 재보선 후보 선출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면접심사를 한 7곳에 대해서는 최고위 차원의 전략공천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경남지사 단일후보로 추대된 김경수(경남 김해)의 의원이나 총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양승조(총남 천안병) 의원의 지역구 등 추가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공천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재보선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가 같이 움직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만큼 광역단체장 후보의 의견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공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정훈 지지... 힘받는 김영록 '대세론'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투표 앞두고 "무난한 승리" 자신감
 장만채, 고발전 총공세 뒤집기 노려... 동부권 표심 막판 변수로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1차 경선을 통과한 김영록 예비후보와 장만채 예비후보가 18일과 19일 최종 후보 결정을 위한 2라운드 결선투표에서 마지막 직면 승부를 겨루게 된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결선투표를 앞두고 막판 돌발 변수가 생겨나면서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신정훈 예비후보가 16일 김영록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

한 만큼 결선투표에서도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신정훈 예비후보가 16일 김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기에 따라 결선투표에서 김 후보 측이 더욱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가 1차 경선에서 얻은 26.58%의 표심 중 어느 정도가 김 후보 쪽으로 이동할지는 가능하기 어렵지만, 신 후보의 지지선언으로 김 후보가 내세워 온 대세론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1차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장만채 예비후보는 김영록 후보에 대한 고발 등 총공세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장 후보 측은 이날 "김영록 예비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전송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 측은 "김 예비후보는 경선 여론 조사일인 지난 13일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로 일반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 측은 또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보내 김 후보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육성 녹음은 선관위에 문의를 했다"면서 "당원들에게 전화를 보냈는데, 그것이 일반인인지 여부를 우리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김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과 관련해 선관위와 검찰, 민주당 중앙당이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수와 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 표심 변화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김영록 후보는 안도, 장만채 후보는 영암이 고향으로 두 후보 모두 전남 서남권 출신이다. 하지만 장 후보는 대부분의 생활을 전남 동부권에서 해온 만큼 동부권이 주 지지기반이다. 동부권은 순천 현재까지 이 지역 출신 지사를 배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남 동부권의 막판 표심 향배가 주목된다.

/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5·18' 지방공휴일 될까

정부, 지자체 지정 가능하게
 광주시 "규정 바뀌면 추진"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돼 5월 18일이 휴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법정 기념일은 모두 48개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남세조의 날' '서해수호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제주 4·3'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5월 18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행안부의 규정이 바뀌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공휴일 도입을 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을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관계기관 의견 조화 등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공휴일 규정이 신설돼 지자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실제 휴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자체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광주, 미세먼지 불안증 커진다 ▶ 6면
 유쾌한 팝아트 세계로의 초대 ▶ 16면
 KIA 전광대-반전 노리는 호랑이 ▶ 20면

HNT 하나투어
하나팩

4월 30일부터 무안 다낭·방콕·오사가 하늘길이 활짝!

제주항공 정규편 신규 취항! 하나투어에서 준비한 취항 특가 지금 떠나기 딱 좋습니다!

무안 ↔ 방콕 주4회 운항
 3박5일(수/목) 4박6일(토/일)

AAPP01
방콕/파타야 5일, 6일

3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40 / 선택경비 있음
 #산호선 즐기 #다양한 특식

무안 ↔ 다낭 주2회 운항
 3박4일(토) 4박5일(화)

AVPF13
다낭/호이안/후에 4일, 5일

4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40 / 선택경비 있음
 #휴양과 관광 오감만족 #힐링여행지

무안 ↔ 오사카 주8회 운항
 3박4일(월/목/금/일) 2박3일(수/금)

JOPF01
오사카/교토/나라 3일, 4일

6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없음 / 선택경비 있음
 #쇼핑,관광,먹거리 천국 #다양한 특식

인신공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 228-1199

■ [여행상품 가격표 환산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형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 참조)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과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 참조) ■ [무비자] 무비자 신청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정지 동해변호 차20004~0903-6 (중로구)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 있음)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16, 1577-1233(ARS 안내번호 02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편이 포함되는 상품/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체세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대입장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참수 권고 ●여행 금지 |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요권 (주)하나투어에서 담당합니다.